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6.(목) 12:00 (2026. 11. 27.(금) 조간)

노동부, 최초 지방감독 위임 사업장 선정

- 「전국노동감독협의회」에서 5개 지방정부에 332개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11월 27일(금) 제2회 「**전국노동감독협의회**」를 서면 개최하여,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(이하 "법"이라 함) 시행일(12.8.) 감독을 시작하는 **5개 지방정부(서울·전남광주·경기·경남·제주)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332개소의 감독 권한을 위임**한다고 밝혔다.

「**전국노동감독협의회**」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**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법정 협의 기구**이다. 중앙에서 노동부장관(의장), 법무부·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여하고, 지방에서 16개 시·도 부단체장이 참여한다.

8개월간 단계적으로 준비… 합동감독 통해 차근차근 실무 경험 축적

이번 위임은 **법 제정(4.7.)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준비**한 결과다. 노동부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30인 미만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「**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**」을 운영하여, **중앙-지방이 함께 합동 감독 및 컨설팅을 실시**하였다. 이를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는 **감독 실무를 현장에서 미리 익히고,**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. 또한, **지역노동감독협의회**(지방정부-지방노동관서 참여)는 지역별 **중점 감독 분야 및 위임 대상**을 사전 협의하였다.

지역 특성 반영한 감독… 향후 5개월간 지방정부가 332개소 감독 실시

12월 8일 감독에 착수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**5개 지방정부 소속 총 30명**이며, 내년 4월부터 나머지 지방정부를 포함해 전국에서 500여 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이 활동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노동부는 **우선 착수인원 30명이 내년 4월 말까지 시범으로 감독**할 물량을 고려하여 **대상 사업장 332개소를 선정**하였다. 감독 대상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임금체불·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. 지방정부별 중점 감독 분야는 다음과 같다.

○ (서울) ▲장시간 근로 예방 위해 **공동주택 경비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**, ▲동절·해빙기 지반 약화 등 위험요인 점검 위한 **취약·소규모 건설 현장**

○ (전남광주) ▲체불 다수 제조업, 다단계 하도급 조선업, **외국인 다수 고용 수산어업**, ▲**화재·폭발 위험 큰 선박 건조·수리업** 및 건설공사

○ (경기) ▲**임금체불 다수 6개 업종**(목재가구제조업·편의점·음식점업 등) ▲**유해물질 취급 4개 업종**(식품제조업, 플라스틱금속고무가공업, 재활용가공업 등)

○ (경남) ▲임금체불 다수 **기계·장비 제조업, 금속 가공 제조업** ▲**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, 강선건조업** 등 사고 다발 업종

○ (제주) ▲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잦은 **도소매·음식점** ▲**숙박업, 건설자재기계 임대업, 축산업** 등 사고 다발 업종

감독 착수 점검회의… 준비상황 및 리스크 관리까지 사전 점검

같은 날 노동부는 5개 지방정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 부서장 등이 참여한 「**지방정부 감독 착수 점검회의**」를 열고, **준비상황을 최종 점검**한다. 참석자들은 감독 착수 **준비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점검**하고, 첫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다양한 시행착오 등 리스크 대응 방안**도 논의할 예정이다.

김도형 근로감독정책단장은 "12월 8일은 중앙정부만 맡아 오던 **노동감독에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는 첫날**"이라며 "노동부는 **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** 마음으로 멘토링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고, **영세 사업주에게는 예방과 노무관리를 돕는 감독**이 되도록 함께 살피겠다"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협력과	책임자	과 장	구현경	(044-202-7821)
		담당자	사무관	류한석	(044-202-7826)
		담당자	사무관	손우진	(044-202-7822)
		담당자	주무관	현원규	(044-202-7827)
		담당자	주무관	원동영	(044-202-7825)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	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강숭훈	(044-202-8914)
		담당자	주무관	성은창	(044-202-891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